

##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어휘교육에서 나서는 몇가지 방법

장 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어는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어가 있지만 우리 말처럼 표현이 풍부한 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어휘가 문법과 함께 언어의 2대구성부분의 하나인것으로 하여 어휘교육은 언제나 언어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어휘를 습득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즉 해당 어휘의 말소리와 뜻, 쓰임, 사회문화적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 어휘를 정확히 습득했다고 말할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는 어휘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법들이 탐구되고 적용되어왔다.

뜻같은말이나 뜻반대말, 소리같은말과 같은 련관어를 통한 교수법, 어휘의 구조분석을 통한 의미습득법 등은 지난 시기 어휘교육에서 보편적으로 리용되어온 교수수법들이다.

이러한 교수수법을 리용하여 지금까지 어휘교육에서는 주로 어휘의 실질적의미를 직접 해설해주는것이 일반적이였다.

교육실천에서 어떤 어휘를 가르친다고 할 때 교수자는 해당 어휘의 발음과 함께 어휘가 나타내는 뜻을 알려주는데 이때 가르치는 어휘의미는 주로 실질적의미로서 해당 문장속에서 실현된 의미에 한정되게 된다.

어휘의 실질적의미만 주는 이 방법은 구체적인 문장에서 쓰인 어휘의 뜻을 리해하고 나아가서 어휘의 일반적의미를 인식시키는데는 일정한 의의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어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도록 한다고 볼수 없다.

어휘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확한 리해를 가지는데는 실질적의미뿐아니라 어휘에 들어있는 관계적의미와 뜻빛갈, 사용에서의 특성, 뜻에 대한 사회적평가 등 여러가지 보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어휘에 대한 이러한 보충적인 배경지식은 비록 실질적의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을 떼어버리면 해당 어휘를 정확히 리해할수 없게 된다.

어휘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교수순차와 공정에 따라 교육방법이 제약되게 된다. 때문에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교수공정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하여 도입하는것은 어휘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나 같은 부류의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수준이 꼭같다고 볼수 없으며 남녀별,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차이로부터 동일한 학습방법에 대한 습득효과도 꼭같지는 않은것이다.

그러므로 언어교육에서 해당 언어의 특성에 따르는 효과적인 여러가지 방법들을 적극

연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교육에서 어휘의 정확한 습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들을 보기로 한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교육에서 어휘를 정확히 습득시키는데는 무엇보다먼저 실질적의미를 한정하고 정밀화해주는 방법이 있다.

실질적의미라는 개념은 《조선어의미구조론》에서 처음으로 쓰이였다.

《...어휘적의미는 실질적의미만을 나타낸다. 즉 추상적인 문법적의미, 문맥적의미를 제외한 실질적인 정보적내용만을 인정한다. 여기로부터 어휘적의미와 문법적의미, 실질적의미와 관계적의미, 언어적의미와 비언어적의미라는 개념이 성립되게 하였다.》[《조선어의미구조론》 주체94(2005)년 사회과학출판사 24페이지]

즉 실질적의미는 어휘적의미가 나타내는 실질적인 정보적내용이다.

어휘의 실질적의미를 한정하고 정밀화하는것은 어휘습득의 기초단계에서 비교적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례를 들어 우리 말에서 《언니》, 《오빠》라는 단어들의 대상론리적의미는 각각 《손우의 여자》, 《손우의 남자》이다.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이 단어들에 대하여 이러한 대상론리적의미만 습득시켜서는 정확한 인식을 줄수 없다. 그것은 우리 말에 이러한 대상론리적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우의 단어들의외에도 《누이》, 《형》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니》, 《오빠》라는 단어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전제를 주어야 《녀자와 맺어지는 사회적관계를 나타내는 뜻이라는것과 녀자들속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내용을 담은 한정으로써 이 단어들을 정확히 리해하고 바로 사용하게 할수 있다.

어휘의 실질적의미를 한정하는 보충적인 설명은 뜻이 실현되게 되는 현실적조건이나 환경, 전제들을 밝혀주는 방식으로 진행할수도 있다.

우리 말 어휘들가운데는 단어의 뜻이 쉽게 리해될수 있는 현실적조건이나 환경을 설명하는것이 효과적인것들도 있다.

특히 구체적인 사물현상이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 사물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같은 단어들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례로 《딱하다, 공교롭다, 따분하다》 등과 같은 단어들에 대하여 그저 사전적의미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시키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 경우 이러한 단어들이 쓰이게 되는 언어적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면 의미습득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다른 실례로 단어 《반갑다》를 들수 있다.

이 단어의 실질적의미는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고 기쁘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의미만으로는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이러한 실질적의미만으로는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즐겁다》, 《흥겹다》, 《기쁘다》 등과 구별되는 《반갑다》의 정확한 의미를 구별하기가 어렵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반갑다》라는 단어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라는 전제를 주어야 비로소 이 단어의 실질적의미를 정확히 인식시킬수 있다.

단어들사이의 미세한 의미적차이에 대한 구분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언어교육의

기초단계에서는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뜻비슷한말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습득하는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습득단계가 높아지면서부터는 뜻비슷한말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애로를 주는 어휘부류로 된다. 이때 어휘적의미를 한정하고 정밀화해주는 방법은 효과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교육에서 어휘를 정확히 습득시키는데는 다음으로 뜻실현의 결합구조적특성을 밝혀주는 방법이 있다.

다른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말 어휘들가운데는 구조적으로 제약된 어휘들이 적지 않다. 개별적인 뜻을 제약하는 형태와 결합구조는 진술의 논리적요구에 의한것도 있지만 관습적인 사용에 의해서 관용화된것이 많다. 따라서 뜻의 기능실현을 제약하는 구조는 민족적인 특성을 진하게 나타내는 언어적특성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말에는 《불굴, 절세, 만고, 천추, 제탄》등과 같이 제한된 형태로만 쓰이는 얼마간의 특수한 단어들이 있다.

- 고결한 혁명의 붉은 피가 묻은 한벌의 옷과 소녀의 고무신, 그것은 김형권동지께서 남기신 불굴의 혁명정신과 인민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었다.
-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웅대함의 극치를 이룬 대자연의 절경과 여기에 어린 항일대전의 기상과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령장 장군님의 위대성으로 하여 백두는 오늘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솟아 이토록 숭고하고 장엄한 감명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아닌가.

레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굴, 절세, 만고》는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속격토가 붙은 형태로만 쓰이고있다.

- 우리 인민은 천추에 잊을수 없는 이 원한을 안고 기어이 미제를 복수할것이다.
- 그래도 제탄엔 드물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길을 걸었다고 자부하고있었다.

우의 레문에서처럼 《천추, 제탄》과 같은 단어들은 여격토 《에》가 붙은 형태로 쓰인다.

우리 말에는 이밖에도 《최선을》과 같이 대격토 《을》이 붙은 형태로만 뜻이 실현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추호도》와 같이 도움토가 붙은 형태에서만 뜻이 실현되는 단어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들의 뜻을 인식시키는데서 해당 단어들이 쓰이는 제한된 형태를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 말에는 제약된 상관구조를 가지고있는 어휘들도 적지 않다.

제약된 상관구조는 일정한 단어와 결합되는 단어부류 또는 그 형태가 한정되는 구조이다. 결합관계에 의해서 제약되는 뜻은 관용성, 성구성에 의해서 유착된 부류가 많다.

우리 말에서 일부 명사들은 한정된 일부 동사나 형용사하고만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용언에서 한정된 일부 명사와만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

-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를 못내고있었습니다.

레문에 들어있는 《엄두》는 《어떤 일을 감히 해보려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주로 《나다》, 《내다》 등과 함께 부정하는 표현과 어울려쓰인다.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보충적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대수롭다, 시답다, 맞갖다》 등의 형용사들에 대하여서는 부정하는 단어들인 《아니하다, 앓다, 못하다》 등과 어울려 쓰인다는데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우리 말에는 한정된 어울림관계를 나타내는 부사들도 있다.

어울림관계는 논리적으로 요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여 논리적으로 요구가 언어형식 즉 문법적 구조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단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울림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해당 단어의 의미를 옳게 파악하도록 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말에서 부사의 어울림관계에는 부정하는 단어와의 어울림, 의문이나 되물음을 나타내는 표현과의 어울림,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과의 어울림 등이 있다.

○ 그렇지만 그들이 생활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레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사 《결코》는 주로 《없다, 아니다, 못하다, 앓다》 등과 같이 부정하는 단어들과 어울려 쓰이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부사에는 《차마》도 있다. 부사 《차마》도 주로 《앓다, 못하다》와 같이 부정하는 단어들과 어울려 동사의 뜻을 부정하는데 쓰인다.

그런가 하면 부사 《설사》는 《더라도, 극지라도, 기로, 극망정》 등의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용언형과 어울려 쓰이며 부사 《비단》은 《만 아니라, 극뿐아니라》와 같은 포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어울려 쓰인다.

이처럼 우리 말에서 어울림이라는 문법적 의미가 형태와의 통일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히 습득시키는 문제는 해당 어휘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교육에서 어휘를 정확히 습득시키는데는 다음으로 뜻빛갈을 밝혀주는 방법이 있다.

뜻빛갈은 기본뜻에 보충적으로 덧붙여 생겨나면서 아직 자립적인 뜻으로까지는 되지 못한 뜻이다.

뜻빛갈은 어휘적 뜻과 함께 실현되면서 사람들의 섬세한 감정과 심리를 나타낸다.

뜻빛갈은 단어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난다. 어떤 것은 어휘적 뜻과 유착되어 있어 따로 갈라내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어휘적 뜻과 쉽게 갈라지는 것이 있다. 여기서 뜻빛갈은 어휘적 뜻을 보충해준다.

외국인들의 조선어어휘습득에서 비교적 어려운 점의 하나가 바로 어휘의 뜻빛갈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선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경우에는 보통 언어습득과 언어환경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뜻빛갈어휘를 언어관습으로 구별해내고 언어를 사용하는데서 오류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에는 어휘의 뜻빛갈을 구별해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은 뜻빛갈이 어휘적 뜻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어휘의 의미구조에서 쉽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외국인들은 교수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뜻빛갈은 단어의 기본뜻에 이러저러한 평가적 또는 정서적 빛갈이 덧붙여서 표현되는 뜻이다.

대상, 현상에 대한 감정정서적 빛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여 뜻빛갈은 대상을 대하는 태

도에 따라 크게 긍정의 뜻빛갈과 부정의 뜻빛갈로 구분해볼수 있다.

긍정의 뜻빛갈은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상대방을 대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표현된다.

실례로 《아바이》나 《아주머니》, 《언니》와 《아저씨》 등 단어의 갈라진뜻에서는 친근한 뜻빛갈이, 《꼬마》, 《엄마》와 같은 단어에서는 정다운 뜻빛갈이 표현된다. 그런가 하면 《아가》와 《너석》의 갈라진 뜻에서는 귀엽게 이르는 뜻빛갈이 표현되며 《사랑하다》, 《편찮다》 등과 같은 단어들에서는 점잖게 이르는 뜻빛갈이, 《돌아가다》, 《앓다》 등에서는 예들러서 속되지 않게 이르는 뜻빛갈이 표현된다.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뜻빛갈에는 부정의 뜻빛갈도 있으며 이것은 어휘의 의미리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부정의 뜻빛갈에 사람들의 대립관계가 반영되어있고 부정의 감정이 깔려있기때문이다.

실례로 《애비, 할미, 녀편네》와 같은 단어에는 《아버지, 할머니, 안해》를 낮추 대하면서 깔보는 뜻빛갈이 담겨져있다. 그런가 하면 《꼬맹이, 풋내기》는 각각 키가 작은 나 어린 사람, 무었에 서툴거나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보잘것 없는것으로 업수이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뜻빛갈을 나타낸다.

부정의 뜻빛갈에는 이밖에도 규탄을 받아야 할 대상을 증오하여 이르는 뜻빛갈과 욕으로 이르는 뜻빛갈, 비웃는 뜻빛갈, 룡조로 이르는 뜻빛갈, 속되게 이르는 뜻빛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어휘교육에서 우리 말에 풍부히 발달되어있는 뜻빛갈어휘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교육하는것은 어휘의미를 바로 습득하고 례의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어휘적의미를 정확히 습득시키는데는 이밖에도 일정한 사회력사적배경속에서만 쓰이는 어휘들에 대해 뜻사용의 사회력사적전제를 밝혀주는것도 있다.

우리 말 어휘들속에는 《연길폭탄, 비행기사냥군조, 천리마운동, 군수, 무당, 고리대》 등과 같이 일정한 력사적시기에만 쓰인것으로 하여 해당 사회력사적배경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는것들도 있다.

이러한 어휘들에 대한 습득에서는 어휘적의미와 함께 반드시 해당 어휘들이 쓰이는 사회력사적배경을 인식시켜주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

아름답고 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 어휘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뜻에 맞게 바로 쓰도록 가르치는것은 현시기 조선어교육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앞으로 우리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우리 말 교수방법들을 적극 연구도입함으로써 우리 말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실질적의미, 배경지식